

『2023년 서울시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 성과 분석』
최종보고서

과제기간	2023년 7월 1일 - 2023년 11월 30일	담당자	강하라, 이주리
소요액	12,586,570원	작성일	2023년 12월 11일

I. 연구배경 및 목적

- 보육 환경을 둘러싼 정치 및 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변화에 따라 서울시 역시 양적 확충을 중심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던 관점에서 서비스 질 개선 중심으로 보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꾀하고 있음.
-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영유아 대상의 보육과 교육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환경으로 알려져 있으며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0), 낮은 교사 대 아동비율로 운영되는 집단이 양질의 보육과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남(Banghart & Kreader, 2012; Zomer et al., 2013).
- OECD 국가 평균적으로 교사 1명당 약 15명의 아동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고되나, 한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아동의 수가 OECD 국가 평균 수준보다 높음.
- 서울시는 제4차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플랜에 2025년까지 전 연령 대상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을 축소할 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음.
 - 집중 돌봄이 필요한 만0세반(1:3→1:2)과 유아 밀집도가 높아지는 만3세반(1:15→1:10 이하)부터 우선 적용 중임.
 - 사업 내용: 대상 어린이집의 신규채용 보육교사 인건비를 전액 지원
 - 사업 현황: 2021년 국공립 어린이집 110개소(110개 반)로 시작, 2022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110개소에 서울형 민간·가정 등 어린이집 50개소(50개 반) 추가함. 2023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300개 반과 서울형 어린이집 100개반으로 사업 시행 중임.
- 본 연구는 서울시 보육 질 향상을 위한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시범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를 분석하는 것을 통해 향후 서울시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시범사업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음.

II. 연구내용 및 방법

□ 문헌 및 정책자료 분석

- 교사 대 아동비율 관련 선행연구 검토(효과, 필요성 등)
- 서울시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시범사업 운영 현황 및 기존 성과 분석 결과

□ 조사방법

- 설문조사: 시범사업 참여 어린이집 원장 287명, 보육교사 402명, 양육자 748명, 총 1,437명
- 면접조사: 시범사업 참여 어린이집 원장 11명, 보육교사 11명, 양육자 10명, 총 32명

▣ 표 1 ▣ 조사 개요

항목	설문조사			면접조사			
조사 기간	2023. 09. 15. ~09. 27			2023. 08. 10. ~08. 21			
조사 대상	구분	인원		구분	인원		
		원장 (총 287명)	만0세 179명 만3세 일반반 84명 만3세 장애통합 18명 장애전문 6명		원장 (11명)	만0세 4명 만3세 4명 장애통합·전문 3명	
	보육교사 (총 402명)	만0세 256명	보육교사 (11명)	만0세 4명			
		만3세 일반반 102명		만3세 4명			
		만3세 장애통합 38명 장애전문 6명		장애통합·전문 3명			
	양육자 (총 748명)	시범반 693명	양육자 (10명)	만0세 4명			
		이전 시범반 109명		만3세 4명 장애전문 2명			
	조사 내용	·참여어린이집 특성 ·시범사업 참여 후 영유아-교사 상호작용 질적 변화 ·보육교직원 근무여건 변화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시범사업 관련 요구 등			·시범사업 참여 후 영유아-교사 상호작용/ 보육과정 운영 / 양육자-교사 상호작용 등 질적 변화 ·보육교직원 근무여건 변화 ·어린이집 운영 영향 ·시범사업 관련 요구 등		

□ 조사내용

- 설문조사: 시범사업 참여 어린이집 특성 및 시범사업 참여 후 보육과정 및 일과 운영 변화, 보육 교직원 근무여건 변화, 어린이집 운영·이용 변화, 시범사업 성과 및 기대 성과, 시범사업 관련 요구 등
- 면접조사: 시범사업 참여 후 보육과정 및 일과 운영 변화, 어린이집 운영·이용 변화, 시범사업 관련 요구 등

□ 교사 대 아동비율 관련 선행연구 검토

- 교사 대 아동비율이 낮을수록 긍정적인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이 증가하고(김기철, 신애선, 2016; Chan, 2019), 교사의 공감 수준이 더 높으며(구성희, 우현경, 2022) 교사가 영유아 개개인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김은설, 이재희, 박은영, 김정숙, 2016)으로 보고됨.
-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에 관한 현장의 요구는 매우 높아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설문 결과, ‘교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 감소 및 보육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교사 대 영아 비율 조정’에 98.6%가 찬성함. 어린이집 보육 질 향상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과 보육교사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 1순위로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가 꼽혔으며(김송이, 김명순, 김한나, 2020), 코로나19 이후 보육교사들의 과중 노동과 무급노동 해소 방안으로 교사 대 아동 수 축소가 요구되고 있음(김영, 김수정, 2021).
 - 교사가 담당하는 영유아가 비율이 높을수록 아동학대 발진 가능성이 높으나(이슬, 2016), 교사 대 아동비율 법정 기준을 준수할수록 교사들의 아동학대 예방 인식 수준이 높아짐(박은경, 강희숙, 2022). 어린이집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추는 것에 관한 교직원 및 양육자의 요구 역시 지속적으로 도출됨(양미선, 2021; 이영아, 이대균, 2017).
 - 교사 대 아동비율이 낮을수록 아동의 개별적 욕구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갈등을 조정하는 것에 더 적은 시간을 들일 수 있기에(OECD, 2020) 개인별 특성에 맞춘 개입이 요구되는 보편적 발달을 벗어난 아동을 보육함에도 효율적임. 또한, 영유아의 문제 행동을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개입·지원하기 위해서도 교사 대 아동비율의 조정을 필요로 함(홍성호, 강혜원, 정기섭, 2016).
 - 2019년 개정된 누리과정은 보육·교육현장에서 교사와 유아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은 높은 교사 대 아동비율로 ‘안전’ 중심의 소극적 역할 수행에 그치고 있음을 보고함(이양숙, 하양승, 전홍주, 2020; 이정아, 양연숙, 2022). 놀이 중심 교육을 시행하는 타 국가들의 교사 대 아동비율은 1:7(핀란드), 1:13(영국), 1:14(독일) 등으로 우리나라의 교사 대 아동비율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짐. 진정한 놀이 중심 누리과정이 이루어지고 유아 주도의 놀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사 대 아동비율 조정은 요구됨(이양숙, 하양승, 전홍주, 2020; 이정아, 양연숙, 2022; 임명희, 2020; 허민정, 권희경, 2020).

□ 서울시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시범사업 현황

- 2023년 서울시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297개소에 서울형 민간·가정 등 어린이집 98개소로 총 395개소, 400개 반(22년 대비 신규 어린이집 240개 반 추가 선정)을 대상으로 시행 중임.
 - 유형별로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300개 반, 서울형 어린이집 68개 반, 영아전담 어린이집 9개 반,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7개 반,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28개 반, 직장 어린이집 8개 반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존 서울시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시범사업 성과 분석 한계

- 2021년도 서울시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 시행 성과 분석의 경우 어린이집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어린이집 규모에 따른 성과 차이, 인력배치 개선수요가 높은 취약보육 운영 성과 차이, 어린이집 운영 측면에서의 비용 효과성, 조직문화 개선 효과 등을 추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제안됨.
- 2022년 서울시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 성과 분석의 경우 취약보육 운영에서의 세부적인 성과 확인은 면접조사의 형식으로 참여 어린이집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는 한계가 있음.
 - 취약보육 운영에서의 세부 성과 확인 및 놀이에서의 교사 역할 변화 등도 설문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성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시범사업 유사 타 지자체 정책 분석

- 경기도, 대전시 등 몇몇 타 지자체에서 서울시의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시범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시범사업과 대상 연령 및 지원 내용 등이 유사하지 않은 지자체들의 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표 2 ▣ 서울시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사업과 타 지자체 유사 사업 간 비교

구분	서울시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사업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대전시 0세 전용 어린이집	부산시 부산형 영영아반	인천시 인천형 어린이집	광양시 어린이집 반 정원 조정
대상 반	만0세, 만3세, 장애아전문	만0세 (18개월 이하)	만0세	만0세 (12개월 이하)	만0세, 만1세	만0세, 만1세, 장애아반
대상 기관	국공립, 서울형	가정	직장 및 부모협동제외 어린이집	국공립, 민간, 가정	민간, 가정	시 내 전체 어린이집
지원 내용	인건비	인건비 및 운영비	인건비 및 운영비	운영비	운영비	인건비
선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평가제 A, B등급 또는 평가인증 80점 이상 • 신청 반 보육실 면적 아동 1인당 2.64m²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평가제 A등급 • 보호자와 담임교사 동의율 80% 이상 • 6개월 평균 정원충족률 7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인증 등급 A등급 또는 90점 이상 • 공고일 기준 정원충족률 70% 이상 • 어린이집 운영 기간 1년 이상 • 대전광역시 관리시스템(행정회계) 등록 중인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시행 초기이기에 매월 신청제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최상위등급 또는 평가인증 점수 9점 이상 • 1년 평균 정원충족률 60% 이상 • 평균 현원 1인 이상 정원 3인 이하 • 맞벌이 가정 현원 30% 이상 • 아동학대예방 집합교육 실시 여부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 정원 조정 후 현원 유지 가능한 어린이집 대상 매월 신청제로 지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사업 전면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교육시행 • 부모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시행 • 어린이집 초과근로 수당 • 조원인건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교사 처우 개선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분기별 운영 실적 보고 (어린이집→구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개선비 1회 지원 • 현판 및 지정서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부터 전체 어린이집의 만0, 1세 반으로 확대

서울시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시범사업 운영 실태 및 성과 분석

□ 시범사업 시행 이후 보육과정 운영에서의 변화

- 원장과 교사, 양육자 모두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로 영유아-교사 간 상호작용의 양적·질적 증가를 인식함. 설문조사 결과 ‘시범사업 이후 교사-영유아간 긍정적 상호작용이 증가하였다’는 문항에 원장 4.79점, 만0세 교사 4.79점, 만3세 일반반, 장애통합, 장애전문 교사 4.58점으로 5점 만점에 4.5점 이상으로 높은 점수를 보임.
 - 시범사업을 통한 성과 1순위로 ‘영유아 개별 요구에 대한 민감한 대응으로 상호작용 질 제고’를 꼽아(원장: 64.8%, 만0세 교사: 62.3%, 만3세 일반반, 장애통합/전문 교사: 43.2%) 영유아-교사 상호작용의 질적 변화를 시범사업의 가장 큰 성과로 인식함을 알 수 있음.
 - 면접조사 결과에서도 원장과 교사는 시범사업 이후 영유아-교사 1:1 상호작용 및 영유아 관찰 등이 증가하였음을 큰 변화로 인식하였으며 그에 따른 아동과의 애착, 긍정적 관계 형성이 늘어났다고 보고함. 또한, 영유아-교사 간 상호작용 증가에 따라 교사가 영유아 개별특성 및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개입하는 돌봄이 가능하였다고 인식하였으며 이는 양육자 역시 동일하게 느끼는 것으로 보고됨.
- 영유아-교사 간 긍정적 상호작용 증가는 교사의 표현 양식에도 변화를 주어, 교사는 ‘시범사업 이후 영유아의 새로운 시도를 기다리고 격려하는 것이 증가하였다.’는 문항에 각 4.78점(만0세 교사), 4.60점(만3세 일반반, 장애통합/전문 교사)으로 높은 응답을 보임.
 - 면접조사에서 원장은 시범사업 참여 이후 교사들의 부정적 언어표현(‘안 돼, 하지마, 싸우지 마.’ 등)은 감소하고 긍정적 언어표현 및 영유아들의 도전과 시도를 강화하고 기다려주는 모습이 증가하였음을 보고함. 교사 역시 기존에 또래 간 갈등 중재 또는 안전 위주의 소극적 활동 제안에서 공감 및 이해, 해결방법 제시 등으로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양식이 변화하였음을 이야기함.
- 원장과 교사는 시범사업 이후 보육과정 운영의 다양성이 증가한 것으로 인식함.
 - ‘시범사업 이후 바깥놀이 횟수가 많아졌다.’라는 문항에 원장 4.67점, 만0세 교사 4.65점, 만3세 일반반, 장애통합/전문 교사 4.42점으로 높은 점수를 보임. ‘시범사업 이후 대근육/신체활동 놀이 운영 횟수가 많아졌다.’는 문항 역시 원장 4.67점, 만0세 교사 4.69점, 만3세 일반반, 장애통합/전문 교사 4.48점으로 답함.
 - 면접조사에서 만0세반과 장애통합/전문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 모두 시범사업 이후 바깥놀이가 증가하였으며, 기존에 비해 대근육/신체활동을 일과에 포함하는 비율이 증가하였음을 보고함. 이는 올해 시범사업을 처음 참여한 기관의 원장보다 기존 기관 원장의 응답 점수가 더 높았음. 이를 통해 시범사업 참여 기간이 늘어날수록 보육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 시범사업 참여 이후 영유아의 놀이 유형이 다양해지고 확장된 것 역시 교사들이 높게 인식한 시범사업 이후 변화임(만0세 교사: 4.61점, 만3세 일반반, 장애통합/전문 교사: 4.37점).
 - 면접조사에서 원장과 교사는 시범사업 시행 이전에 비해 영유아 주도의 놀이 활동이 증가하였음을 보고

하였고 놀이의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놀이 중심 보육과정 운영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임.

○ 장애통합 또는 장애전문 어린이집의 원장은 장애 아동 문제 행동 발생 시 개입 및 해결 시간이 단축된 것을 가장 큰 변화로 인식하였음(4.46점). 교사의 경우 시범사업 전에 비해 장애 아동의 개인별 놀이를 관찰할 수 있는 여유가 증가한 것(4.21점)과 장애아동의 개별적 관심에 집중하여 보육 활동 참여를 유도 하는 시도가 증가함(4.21점)을 가장 큰 변화로 인식하였음.

- 장애 아동이 속한 반의 시범사업 전후 변화 인식은 시범사업 참여 기간에 따라 차이를 보임. 원장의 경우 시범사업 참여 기간이 짧은 기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보육·교육 프로그램 운영 빈도 증가를 가장 큰 변화(4.54점)로 인식한 반면, 시범사업 참여 기간이 늘어날수록 아동 문제 행동 발생 시 개입 및 해결 시간 단축(2022년 원장: 4.41점, 2021년 원장: 4.42점)을 가장 큰 변화로 인식하였음. 교사 역시 시범반 담임 경험이 있는 교사가 시범반 담임 경험이 없는 교사에 비해 전반적인 보육과정 운영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높게 보고하였음.

- 장애통합/전문 어린이집의 경우 시범사업 참여 초반에는 일과를 운영하는 프로그램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에서 변화를 인식하나, 사업 참여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육프로그램 다양성 확보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운영 안정성이 증가한 것에 만족감을 느낌.

- 면접조사에서 장애통합/전문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IEP 계획 및 실행 시 교사들 간 공유함으로써 아동에게 더 다양한 경험과 자극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음을 사업 성과로 보고함. 아동 관찰이 증가함에 따른 IEP 시행착오 감소 역시 교사가 인식한 시범사업의 성과 중 하나임.

□ 시범사업 시행 이후 어린이집 운영에서의 변화

○ 시범사업 시행 이후 원장이 인식한 어린이집 운영에서의 가장 큰 변화로는 ‘원아 모집에 긍정적 영향’으로 나타남(4.69점).

- 원아 모집에의 영향은 2023년부터 사업에 참여한 원장의 응답(4.59점)에 비해 2021년부터 사업에 참여한 원장의 응답(4.74점)이 더 높게 나타나 사업 참여 기간에 따른 성과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면접조사에서도 원장과 교사 모두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 원아 모집과 원아 기관 이용 유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남. 관련하여 양육자 역시 ‘이후 어린이집 이용 지속 의사’ (6.71점)와 ‘어린이집 추천 의사’ (6.73점)에 높은 점수를 보였고, 면접조사에서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 기관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가 향상함으로써 해당 어린이집을 이후에도 계속 이용하겠다는 의사와 주변 양육자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음을 보고함.

○ 원장과 교사 모두 ‘교사 부재 시 보육 운영 안정성’ 역시 시범사업 시행 이후 기관 운영에서의 큰 변화로 인식함(원장: 4.61점, 만0세 교사: 4.54점, 만3세 일반반, 장애통합/전문 교사: 4.47점).

- 이 역시 참여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어 2023년 참여 기관 원장(4.55점)에 비해 2021년 참여 기관 원장(4.69점)의 점수가 높았음.

○ 원장들은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교사들의 이·퇴직률(또는 의사)이 감소하였으며(4.54점) 신규교사 채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음(4.52점)에 동의함.

- 면접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원장들은 기존에 업무 과중,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퇴직을 결심했던 교사가 시범반을 맡으면서 퇴직 의사를 번복하였음을 이야기하며 시범사업 시행이 원아 모집 외에 교사 이직률을 낮추고 안정적인 보육이 운영되도록 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음.

○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시범사업 이전에는 월평균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약 2.16건이었으나, 시범사업 시행 이후에는 월평균 약 0.87건으로 감소하였음.

- ‘기관 내 안전사고 발생 빈도 감소’ 는 원장과 교사가 인식하는 시범사업 성과 3순위 안에 드는 중요한 변화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원장 2순위: 7.7%, 만0세 교사 2순위: 16.9%, 만3세 일반반, 장애통합/전문 교사 3순위: 14.4%).
- 양육자의 경우 ‘기관 내 안전사고 발생 빈도 감소’ 를 시범사업의 가장 큰 성과로 인식하였음(27.7%). 이전 시범반 이용 경험이 있는 양육자들의 역시 ‘시범사업반에 있을 때에 비해 안전사고에 대한 염려가 많아졌다.’ 는 응답에 3.58점(7점 만점)으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임. 이는 현재 자녀 이용 반 특성별로 확인하였을 때도 해당 문항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어 시범반을 이용했던 양육자들 역시 진급 이후 안전 사고에 관한 변화를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음.
- 안전사고 발생 빈도 역시 사업 참여 기간에 따라 차이를 보여, 2023년 참여 어린이집의 월평균 안전사고 발생 빈도 감소 폭(1.17건)에 비해 2021년 참여 어린이집의 월평균 안전사고 발생 빈도 감소 폭(1.52건)이 더 크게 나타남.

○ 원장들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시범사업 시행 이후 **양육자들의 불만·항의가 감소한 것에 관해 높은 점수(4.55점)**를 보임. 2023년 시범사업에 참여한 원장의 경우 운영 변화 인식에서 원아 모집에 대한 긍정적 영향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점수(4.57점)를 보일 만큼 신규 어린이집은 시범사업 참여 이후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인식하고 있었음.

- 현재 시범반 이용 양육자 역시 시범사업 이후 ‘담임교사와 원장을 믿고 신뢰할 수 있다’ 는 문항에 6.71점으로 높은 점수를 보임. 면접조사 결과에 의하면 시범사업 이후 교사와의 소통이 증가하고 자녀에 관한 피드백을 상세히 전달해주는 것에 높은 만족을 보였음. 설문조사에도 유사하게 나타나 ‘담임 교사와 자녀에 대해 상담, 이야기할 기회가 충분히 제공된다.’ 는 문항에 6.60점으로 높게 답함.
- 이전 시범반을 이용했던 경험이 있는 양육자들의 경우, 비시범반 이용 이후 변화 인식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염려에 이어 ‘담임교사와 자녀에 대해 상담, 이야기할 기회가 적다’ 에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보임. 비시범반 양육자들의 경우 자녀 연령은 높아졌으나 오히려 교사로부터의 피드백이나 이야기를 충분히 듣지 못함으로 시범반 이용 시기보다 낮은 만족도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 시범사업 시행 이후 교사 근무 여건 변화

○ 원장과 교사 모두 **교사의 업무 부담이 감소하였음을** 보고하였음(원장: 4.63점, 만0세 교사: 4.47점, 만3세 일반반, 장애통합/전문 교사: 4.36점).

- 교사들 역시 시범사업 이후 직무 스트레스 역시 감소한 것으로 인식하였음(만0세 교사: 4.50점, 만3세 일반반, 장애통합/전문 교사: 4.17점).
- 면접조사 시 원장과 교사 모두 담당 아동 수가 감소함과 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일과 운영 부담감이 감소한

것에 더해 일지 작성, 서류 업무 등 공동 업무 역시 분담함으로써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가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음.

○ **교사 간 소통·협력하는 시간이 증가(원장: 4.50점)**하였다는 응답 역시 높게 나타났음.

- 시범사업 이후 팀티칭을 시행하는 기관들의 경우 2명 이상의 담임이 함께 일과를 운영함에 따라 서로 단점을 보완하거나 선의 경쟁자가 되어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보육과정 계획 및 준비 시간이 증가함을 보고하였음.
- 장애통합/전문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역시 교사가 늘어남에 따라 IEP를 공유하고 IEP 수립 시 서로 논의하면서 다양한 계획과 시행이 가능해졌음을 이야기함.
- 면접조사에서 일부 원장과 교사는 팀티칭 시행에 관해 교사들 간 성향이나 경력 등이 조화롭지 않을 때에는 갈등이 발생하여 오히려 조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야기함.

○ 교사들은 **연차 사용에 대한 부담이 줄었으며(만0세 교사: 4.43점, 만3세 일반반, 장애통합/전문 교사: 4.30점), 하루 중 개인 시간(휴식, 화장실 이용)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늘었음(만0세 교사: 4.44점, 만3세 일반반, 장애통합/전문 교사: 4.23점)**을 보고하였음.

- 면접조사에서 담임교사가 한 명 더 있기에 보조교사나 대체교사가 오더라도 좀 더 안심하고 연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됨을 이야기하였음. 개인 시간 역시 교사들 간에 서로 조정·배려하는 것을 통해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이는 교사의 심적 여유 및 재충전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고됨.

○ **교사들의 직무 만족도 및 효능감이 증가하였음.** 교사들은 시범사업 시행 이후로 직무 만족도가 증가한 것으로 인식하였고(만0세 교사: 4.52점, 만3세 일반반, 장애통합/전문 교사: 4.26점) 특히 **직무 효능감 증가에 관한 인식은 가장 높은 점수를** 보고하였음(만0세 교사: 4.54점, 만3세 일반반, 장애통합/전문 교사: 4.28점).

- 면접조사에서 교사들은 시범사업 시행 이후 업무 부담 및 직무 스트레스 감소 등으로 직무 만족도가 향상되었으며, 영유아 및 양육자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 보육 질 향상을 위한 개별적 노력 등을 통해 시범사업 이전보다 직무 효능감이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음.

□ **시범사업 시행 이후 아동 변화**

○ 교사들은 시범사업 시행 이후 **영유아들의 언어적/비언어적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유형이 다양해짐에**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음(만0세 교사: 4.69점, 만3세 일반반, 장애통합/전문 교사: 4.42점).

- 면접조사에서도 원장과 교사, 양육자 모두 시범사업을 통해 영유아-교사 상호작용 증가로 아동의 언어발달과 사회성 발달 등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음을 보고하였음.

○ 시범사업을 통한 영유아-교사 간 긍정적 상호작용 증가는 **아동의 안정적 기관 적응**으로 이어짐.

- 원장은 ‘시범사업 이후 영유아의 신학기 적응 기간이 감소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 는 문항에 4.73점을 보였고 교사는 ‘시범사업 이후 학기 초/주 초반 영유아들의 적응기간이 짧아졌다.’ 는 문항에 각 4.34점(만0세반 교사), 4.14점(만3세 일반반, 장애통합/전문 교사)으로 5점 만점에 4점 이상 응답을 보임.
- 양육자 역시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편안해 보인다.’ 는 문항에 6.70점(7점 만점)으로

높은 응답을 보고하여 응답자 모두 유형과 관계없이 시범사업 이후 영유아의 긍정적인 적응을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면접조사를 통해 양육자들은 비시범반을 이용했던 경험과 비교하였을 때 시범반 이용 이후 자녀의 기관 적응 및 기관 만족도가 현저히 향상된 것을 보고하였음.

○ 교사들은 영유아 간 때리기, 물기, 경쟁하기, 싸우기 등 **갈등 상황이 감소한 것** 역시 시범사업 이후 나타난 변화임에 동의하였음(만0세 교사: 4.39점, 만3세 일반반, 장애통합/전문 교사: 4.16점).

- 면접조사에서도 교사들은 교사 대 아동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아동들이 이전에 비해 교사의 관심을 촉구하는 부정적 정서표현이나 서로 교사의 관심을 받으려 하는 경쟁 행동 등을 보이는 것이 감소하였음을 이야기함.

□ 원장, 교사, 양육자 향후 시범사업 기대성과 및 연령 확대 요구

○ 향후 시범사업 기대성과와 관련하여 원장과 교사는 **‘영유아-교사 간 상호작용 질 향상’**을 기대성과 1순위로 꼽았음(원장: 63.4%, 만0세 교사: 54.9%, 만3세 일반반, 장애통합/전문 교사: 37.0%). 반면, 양육자의 향후 시범사업 기대성과 1순위는 **‘낮은 안전사고 발생 빈도’**(31.1%)로 나타나 원장 및 교사와 양육자 간 사업 시행에서 기대하는 성과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기관 내 안전사고 빈도 감소**의 경우 원장과 교사가 이후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2, 3순위 성과에 해당함(원장 3순위: 7.0%, 만0세 교사 2순위: 16.2%, 만3세 일반반, 장애통합/전문 교사 2순위: 16.4%). 양육자의 경우 **‘다양한 유형의 보육 활동 운영’**(23.2%)을 시범사업 향후 기대성과 2순위로 꼽았음.

- 양육자 유형에 따라 기대성과에는 차이가 있어 만3세 일반반과 장애전문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양육자는 낮은 안전사고 발생에 비해 다양한 유형의 보육 활동에 대한 기대를 더 높이 보여 자녀 발달 특성에 따라 양육자들의 요구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후 시범사업 대상 연령 확대와 관련하여 원장, 교사, 양육자 대부분 현재 운영 시범반의 연계성을 이유로 **만1세 또는 만4세**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

- 만1세를 확대 연령으로 필요로 하는 비율이 58.9%로 가장 높았고, 만2세, 만4세, 만5세 순이었음. 영아반(만1,2세)과 유아반(만4,5세)으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도 영아반에 대한 요구가 유아반에 비해 높았음.

- 연령 확대 이유, 필요성으로 응답자 유형과 관계없이 **‘영유아의 기관 적응 향상’** 과 **‘교사 업무 부담 감소’**, **‘장애 또는 장애 의심/경계선 아동이 점점 늘고 있기에’** 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원장, 교사, 양육자 시범사업 관련 추가 요구

○ 시범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연령 확대 외에 면접조사를 통해 원장과 교사, 양육자 공통적으로 도출된 추가 요구에는 △현원 기준 완화 △시범반 구성 유예 기간 연장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안내 및 홍보 △교사 대상 교육 △대상 어린이집 유형 확대 △운영비 추가 지원 등이 도출됨.

4

향후 정책과제

□ 정책방향

- 첫째, 단기적으로 사업 대상 연령의 확대와 시범사업 지원 시 기준 완화·조정과 같이 **사업 시행구조 측면 조정**을 제안함. 이에 더해 사업에 참여하는 어린이집과 자치구별로 사업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워크샵 시행과 같은 **사업 시행방안 보완**을 제안함.
- 둘째, 중기 과제 방향의 경우 보다 많은 수요자에게 시범사업 내용과 운영을 알리는 **사업 홍보 확대**와 시범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보육 서비스 질 향상에 목표를 둔 **사업 연계 지원 확대**를 제안함.
- 셋째, 장기 과제 방향으로는 전체 연령으로의 대상 확대 및 사업 대상 어린이집 유형 확대의 **시행구조 확대 및 조정**과 그에 따른 **운영 지원 확대**, 중앙정부 어린이집 교사 배치 계획에 **연계한 제안**을 들 수 있음.

□ 정책방안

표 4 서울시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를 축소 시범사업 활성화 방향 및 정책방안

방향	정책분야 및 추진과제	추진내용	비고
시행구조 확대/조정	영아반 대상의 연령 확대	만1세와 만2세를 포함한 영아반 대상 시범사업 확대 (만1세 1:5→1:4, 만2세 1:7→1:5)	단기
	사업 신청 기준 조정	만0세반 현원 기준: 6명 이상 운영 → 4명 이상 운영 ☞ 신규반이 1명인 경우, 운영 유예기간 동안 신규반에 1명 추가 모집 조건 만3세반 현원 기준: 15명 이상 운영 → 현원 기준 13명 이상 ☞ 신규반이 현원 5명 이상일 경우 시범반 등록	단기
	영아반 지원 기준 추가	원장 담임반 겸직 어린이집 → 선정 기준 감점, 유예기간 동안 신규 교사 채용 권고	단기
	유아반 대상 연령 확대	만4세와 만5세를 포함한 유아반 대상 시범사업 확대 (만4세 이상 1:20→1:15)	장기
	시범사업 대상 어린이집 유형 확대	기존 국공립, 서울형 제외 민간, 가정, 법인 등 어린이집 대상으로 시범사업 확대	장기
	시범사업 대상 어린이집 신청·운영 기준 추가	정원총족률에 따른 할당량 제한 - 전체 신규 중 일부 비율을 정원총족률 50~70% 어린이집과 50% 미만 어린이집으로 선정 - 정기적 양육자 만족도 조사, 연계 교육·컨설팅 등 참여 - 정원총족률 향상 여부 확인 후 사업 참여 지속 여부 결정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 질 관리·유지 확인 가능한 신청 기준 추가 - 서울형 어린이집 평가 항목 중 최소 '필수', '가점', '감점' 항목 추가 국공립, 서울형 제외 민간, 가정, 법인 등 어린이집은 계도 기간 이후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전환 - 서울형 전환을 희망하는 신청 어린이집 대상 1년 간 집중컨설팅(서울형 의무컨설팅 연계) 시행	장기
시행방안 보완	시범사업 참여 원장 및 교사 대상 사업 설명 워크샵 시행	* 워크샵 내용 - 시범사업 목적과 목표, 시범반 편성·운영 기준, 향후 시범사업 시행 계획 등 - 기존 시범사업 참여 어린이집 사례 공유	단기
	자치구별 시범사업 담당자 대상 워크샵 시행 및 매뉴얼 배포	* 워크샵 내용 - 시범사업 목적과 목표, 시범반 편성·운영 기준, 향후 시범사업 시행 계획 등 - 자주 받는 문의 및 필요 사항 시에 전달 - 시범사업 상세 내용 및 주요 문의 내용 담은 매뉴얼 제작, 배포	단기

	양육자 대상의 시범사업 홍보 활성화	- 원장 및 교사 대상 워크숍 자료 활용한 기관별 안내 자료 지원 -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내 시범사업 BI 기본 제시 - 아이사랑 보육포털에 '지역형' 사업 검색탭 추가 건의	중기
사업연계 지원 확대	교사 대상 맞춤형 연계 지원 시행	*교육 내용 - 연령별 발달 특성 이해, 발달에 맞는 놀이 지원 방안, 원장 및 교사 소그룹 활동 등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보육서비스지원센터의 '서울형 0세 전담반 시범사업' 교육 연계 - 관찰을 통한 영유아 발달 평가 방법, 연계 가능한 기관 안내 등 ☞ 서울아이 발달지원센터와 협력·개발 ☞ 후주의 'Be You' 홈페이지 내 'BELTS' 관찰 도구 등 활용 - 자신의 의사소통·문제해결 방식 이해, 팀티칭 운영의 장점, 효율적인 팀티칭 운영 방안 등	중기
운영 지원 확대	시범사업 참여 어린이집 지원 방식 변화	1안) 시범반 교사 인건비와 운영비 일정액 지원(단, 운영비는 시범반 교사 대상 기타 후생경비로 사용항목 한정) - 효과: 신규교사 채용 또는 고호봉 교사 배치 등으로 인한 원의 인건비 부담 감소, 인력 증원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부담 감소, 보육종사자 일자리 창출 2안) 정원충족률 60%에 맞추어 충족하지 못한 기존 정원 아동 수만큼의 운영비 지급 - 효과: 인력 축소에 따른 운영 부담 감소, 인건비 미지원 기관 대상의 효율적 지원 가능 2안에 따른 선정 기준 강화와 의무 컨설팅 운영 ① 선정 기준 강화 - 서울형 어린이집 평가 항목 '투명한 재정 운영' 지표 항목 추가 ② 의무 컨설팅 운영 - 지원 운영비 사용 점검 - 어린이집 특성에 맞춘 운영비 사용 자문 3안)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1안과 2안을 구분하여 적용 - 각 어린이집 유형(국공립과 서울형, 그 외 유형)에 따라 1안과 2안을 구분하여 적용 - 국공립과 서울형 외 유형의 경우 서울형 참여 이전까지는 2안의 방식으로 지원받으면서 의무 컨설팅 참여, 서울형 참여 이후 1안의 방식으로 변경	장기
중앙정부 연계 제안	유보통합 대비 사업 성과 공유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인력 지원 기준 조정	유보통합 이후 교사 대 아동비를 조정 시 실제 서울시 사업을 통해 도출된 성과 및 개선안 등을 중앙부처와 공유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교사 배치 기준 조정 시 치료사 인건비 지원 조건 조정 제안	장기

5 평가 진행과정

구분	일시	참석자	주요 내용 및 반영 사항
착수 자문회의	2023.07.18.	외부전문가 3명 - 외부전문가 A(학계 전문가) - 외부전문가 B(학계 전문가) - 외부전문가 C(학계 전문가)	- 기존 기관과 신규 기관 간 성과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 있음 ☞ 기존 기관과 신규 기관 간 성과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 참여 기간에 따라 결과를 구분하여 추가 분석하였음 - 아동의 변화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 있음 - 기존 시범사업 대상 반이었다가 진급한 아동들의 변화 확인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참여 전체 아동의 변화 외에도 이전 시범반 양육자 설문 조사 및 원장/교사 설문조사를 통해 변화 확인하였음 - 원 운영 관련 성과 확인 필요 ☞ 기존에 확인했던 내용 외에도 원아모집, 교사 이직률 등 추가적인 내용 확인하였음
최종심의		외부심사위원 3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론의 재구조화 필요 ☞ 의견 반영하여 서론 재구조화 하였음 - 차이 분석 및 평균 비교 등을 시행할 필요 있음 ☞ 기존에 시행한 차이 분석 및 평균 비교 결과를 강조하여 제시하였음 - 면접 결과에 면접자 특성 추가로 제시하여 이해 높일 필요 있음 ☞ 면접 결과에 면접자 특성을 추가로 제시하였음 - 연령 앞 '만' 삭제 및 일반반을 '비장애반'으로 표기 ☞ 의견 반영하여 수정하였음

6 정책활용도 및 문제점

정책활용도

- 목표 대비 결과
 - 성과 목표: 보고서 발간 및 정책 반영
 - 과제 성과: 보고서 발간 1건, 정책과제 제언

○ 정책반영 내용

구분	일시
내년도 사업 시행에 활용	- 2024년 서울시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시범사업 확대 기초 자료 활용 - 2024년 서울시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시범사업 시행 근거 자료로 활용
기타 정책판단의 근거 자료 활용	- 서울시 보육 정책 수립에 활용

문제점: 없음

7 공유 · 확산(홍보) 실적

홍보 내용 및 실적

구분	일시
주요 결과 온라인 배포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정책리뷰 제작 및 배포(예정)
재단 홈페이지 업로드	- 보고서 PDF 파일 탑재(예정)
보고서 배포	- 서울시, 시의회, 관련 기관 배포 등(예정)

8

인력활용 결과

구분	역할내용	기여도
연구책임자 1명 (강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총괄, 자문회의 및 착수중간최종보고 등 진행 - 교사대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 추진 실태 조사 설계, 진행 및 결과분석 - 현장관찰 계획 및 실행 - 심층면접 계획 및 진행, 결과 분석 - 정책대안 개발 - 행정서류 및 예산집행 관리 	80%
위촉연구원 1명 (이주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지원 (관련 통계자료 및 정책현황 자료 수집 및 정리, 조사기획 및 진행 지원, 녹취록 작성 등) - 보고서 편집 	20%

9

예산집행실적

총 예산: 12,651,000원

집행예산: 12,586,570원

구분	예산금액	집행금액	집행률
인건비	2,685,000	2,685,000	100%
일반운영비	9,966,000	9,901,570	99.35%
총금액	12,651,000	12,586,570	99.49%

ㄴ